

축 사

2026. 4. 6. (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 익 원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오늘 협약식은
정책금융기관과 산업계가 하나의 팀으로 결합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해주신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님, 황기연 수출입은행장님,
장민영 기업은행장님,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과,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님,
서강현 사장님을 비롯한
그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협력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약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프로젝트는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 인프라가 어우러진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로봇·AI로 대표되는 퍼지컬 AI 역량 강화와 함께
수소·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 첨단산업 경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새만금 프로젝트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 원대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바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AI 인프라와 수소 에너지 설비와 같이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회수기간이 긴 사업은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금 공급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중소·중견 협력기업,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산업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협약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은 각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대출, 투자, 보증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체계를
검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성장펀드도
민간투자와 정책금융을 연결하는
중요한 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III. 마무리말씀

첨단산업이 지방에서 성장하고,
금융이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대한민국은 보다 균형잡힌 성장구조와
더욱 역동적인 경제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협약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거점을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여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도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첨단산업과 지방성장을 위해
튼튼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